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박안토니나*

|| 차례 ||

- I. 머리말
- II.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
- III. 고려인 문학의 성과와 한계
- IV.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소련의 붕괴와 함께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고려인 문화뿐만 아니라 고려인 문학을 연구하는 시도를 했다. 이들이 연구하는 문학은 한글문학이었고 고려인 연구 대상은 1세대 작가들이다.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2~4세대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시간과 분량과 내용이 너무 미비한 편이지만 근래 여러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인 작가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정하고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2~4세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 시도를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2~4세대 작가들 문학 활동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조사와 자료 미비의 한계를 처음부터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 성과와 한계 그리고 연구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어 : 한국어 문학, 러시아어 문학, 재외 한인 문학, 이중 정체성, 문학 범주, 모국어

*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학과 교수.

I. 머리말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 성과와 한계, 연구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 지칭되고 있는 이 지역의 고려인 인구는 163,787명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0.67%(소수민족 7위)를 차지하고 있다.¹⁾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한인 문학 활동의 의미가 민족문학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 감정기 전후한 시대의 일이다. 당시 러시아 지방으로의 이민이 증가했고, 러시아 지방에서의 새로운 생활 기반을 확보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인들의 생활 무대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조선인 생활은 민족 문학의 또 다른 소재로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끌어모은 바 있다. 특히 구소련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를 시작으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문학 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조명희가 한글신문 <선봉>에 '문예 페이지'를 신설했는데 이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문학의 정신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로 인해 고려인 문학은 남한 문학과 교류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이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러시아어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문학 활동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조사와 자료 미비의 한계를 처음부터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몇가지

1) 고려인 인구 현황 출처 : <https://ru.wikipedia.org>

문제를 중심으로 그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첫째, 소련의 붕괴가 고려인들의 문학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단의 확대 및 변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고려인 문학 활동이 어떠한 민족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민족문학의 한 범주로서 재외한인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인들과 그들이 발표한 문학 작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확인하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민족 문학의 특성이 어떻게 계승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와 그 논의의 방향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문학이 우즈베키스탄 지역 문학의 전체적인 경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

1937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한지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고려인들은 이 지역에서 고려인 사회를 이루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인 동포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정하게 기울이고 있다.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고려인 문화협회를 형성하고 나름의 한 민족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

상화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고려인 문학의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려인 문학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들 연구에서 구소련권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 한글 문학의 실체를 탐색하고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는 구소련 지역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서 고려인의 이주사와 문학의 시기 단계를 나눈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을 두 단계로 나누고 고려인 작품들을 장르별·주제별로 구분하였다.³⁾ 이들의 연구는 고려인 문학의 시기 구분과 시문학의 특징을 개괄함으로써 구소련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의 방법과 문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장르에 대한 연구는 시, 소설, 수필을 중심으로 시, 소설이 갖는 특징적 성격들을 분석하면서, 고려인 문학이 비록 미약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민족문학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려인의 한글문에 작품을 검토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작품의 형태, 작품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논의되었다.⁴⁾

2)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김연수, 『소련 속의 한인 문학』, 시문학사 1월호, 1989.

한진, 『검열과 소의 속에서 자라난 민족문학 ; 재 소련 동포 문단』, 한국문학학회 204(91'7), pp.138~145.

이명재, 『한국현대 민족문학사론』, 한국문화사, 2003.

3) 김중희 편, 이정선,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구소련 지역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시문학 양상』, 2003.

장실, 『러시아에 뿌리 내린 우리문학』, 문예중앙, 1996.

이명재, 『소련지역의 한글 문학 : 국외 고려인 문단 조사-보고서』, 국학자료원, 2002.

이명재,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04.

4) 채수영, 『재소 고려인 소설의 특질』, 『비교문학』8호, 1989, pp.345~364.

조재수, 『중국·소련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론』, 문학한글, 1990, pp.154~179.

고려인 문학의 주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신문인 <고려 일보>의 문예 페이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는데 특히 고려인 소설의 주제적 특징을 다루었다. 그리고 고려인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고 고려인 문학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⁵⁾

김필영⁶⁾은 고려인 한글 문학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했으며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기 구분과 문단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연구는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해 논의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한 논의만 하였을 뿐 고려인 러시아어 문학과 그 연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컨대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개 한국학자들의 관심에 의해 출발되었으나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나 작품 분석이나 번역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인 문학연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미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러시아 지역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 고려인 작가들은 주로

5) 장사선,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 문학 연구 : 호주 한인문학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0집, 1호, 2002, pp.205~253.

6) 김필영, 『송라브렌피의 희곡 ‘기억’과 카자스탄 고려 사람들의 강제 이주체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4, 1998. 12, pp.107~133.

김필영, 『소비에트 카자스탄 한인문학과 희곡작가 한 진(1991~1993)의 역할』, 『한국문학학회』 27, 2000, pp.209~240.

김필영, 『Forced Deportation and Literature Imagin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3, 2002~2010, pp.123~152.

김필영, 『Korean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in Soviet Kazakhstan』, Journal of Korean studies 4, 2003, pp.55~78.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 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연구』, 2005, pp.43~93.

러시아어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 창작은 소련당국의 언어와 문화로의 동화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정권이 무너지자, 1991년 독립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역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문학에서도 소련 정권의 규제와 탄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예의 경향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 고려인 문학 활동도 이와 함께 변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고려인 문단의 현황과 변모에 대해 문예집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에서 미하일박은 ‘한글 작가는 몇 분 안 남았다. 젊은 세대 작가들은 30~40대이다. 문단에는 신세대 교체가 시작되었다’고 언급 한 바가 있다.⁷⁾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어 창작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4세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한국어를 잃어버린 현상은 일반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글로 문학 창작을 할 수 있는 고려인 작가들의 활동 중단이 그 이유겠지만 한글 해독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도 있다.⁸⁾

이 시기 고려인 문학은 우즈베키스탄 새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문예정책에 따라 재정비되고, 러시아문학은 물론 소비에트 문학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발전하고, 이 때문에 고려인 한글문학과도 또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젊은 세대 고려인 작가들은 이 지역의 고려인문학의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고려인 문단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그 결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문화협회 주최로 고려인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에 <고려신문>이 창간되었다. 고려인문화협회 신문이 창간된 것은 단순한 고려인 사회 정비의 의미만이 아니라 고려인 문단의 소생을 뜻하는 중요한 계기가

7) 미하일박, 문예집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 1992.

8) 강희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문학들, 2010, p.55.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문은 그 동안 쌓아올린 고려인 사회의 문화 예술 등 여러 영역의 성과를 재평가함으로써 고려인의 문학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인 문단은 새로운 신인들의 등장, 잡지 신문 등의 활동 무대 확대, 출판사를 통한 작품 보급의 증대 등을 이루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문단의 확대 사업은 <고려신문>의 책임편집자인 김브루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인 문학인 40여명의 문학 활동을 통해서 고려인의 의식과 감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2007년에 타슈켄트에서 고려인 문인서클 『아리랑 1937』이 결성되었고 2008년에 첫 문예집 <아리랑 1937>이 창간되었다. <고려신문> 편집국과 고려인문화협회 작가회의 노력과 대한민국 통일부 및 인천문화재단, 한국 민예총의 도움으로 잡지 창간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문과 문예집의 창간으로 인해 10여명을 넘지 못하던 숫자가 최근에 무려 40여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문예집 『아리랑 1937』은 매년 자신의 문학세계를 발랄하게 펼쳐보려는 고려인 신인작가를 공모하고 있다.

문예집 『아리랑 1937』⁹⁾ 제1집에 소개된 문인들을 문학의 각 영역별로 구분해보면, 시인으로 리바체슬라브¹⁰⁾, 김마르따¹¹⁾, 김릴리아, 김안드레이¹²⁾, 옥바딤, 주쁠라톤, 김빠벨 등이다. 그리고 소설가로는 김블라지미르, 김브루트, 김아브로르, 리블라지미르, 서빅토르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젊은 세대 시인으로 정미하일, 공알랴나, 최예카찌리나, 김잔나, 고류드밀라, 김마크심, 김알레크산드르, 임갈리나, 주바체슬라브 등이다.

9) 문예집 『아리랑 1937』, 제1집, 사니얏 출판사, 2008.

10) 현재 고려인문화협회 내에 운영되고 있는 고려인 작가회장.

11) 우즈베키스탄 작가협회 등록 시인.

12) 포석 조명희의 외손자.

이런 조직들은 고려인 문화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전통을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이 계승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리라고 믿는다.

Ⅲ. 고려인 문학의 성과와 한계

이 장에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받은 때인 199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문학을 <시>와 <소설>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각 장르별 성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어로 창작활동을 한 고려인 1~2세대 문인들은 민족의 수난사를 작품화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적,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소련화된 측면도 많다.¹³⁾ 반면에 러시아어로 창작하고 있는 고려인 3~4세대 문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갈등하면서 그것을 작품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현재 놓여 있는 삶의 조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작품화하

13) 두 가지 문화가 접촉하면서 생성되는 문화 접변은 문화의 융합과 동화라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당시 이미 형성된 언어, 문자, 생활습관, 사유방식 등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고려인이 소유했던 민족어와 민족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소련 문화와 충돌, 거부, 융합의 과정을 겪었다. 이런 융합은 간단히 '소련 문화 + 한반도 문화'라는 명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고려인에게 소련 문화의 부분과 한반도 문화의 부분을 억지로 갈라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국 문화와 소련 중앙아시아의 문화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새로운 '고려인 문화'를 창출하였다. 이런 고려인 특유의 문화는 모국 문화와도 완전 일치하지 않고 소련 중앙아시아 문화와도 완전 일치하지 않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는 모국 문화가 거주국 문화의 동화된 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주국 문화와 융합의 과정을 거친 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일반적인 특징은 이들의 문학에서도 나타난다. (박안토니나, 『중앙아시아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79, 참조)

고 있으면서, 가족이나 고려인 공동체의 갈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인들은 존재하는 조건에 따라 그들의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작품화하고 있다.

문학의 존재 조건이 언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때 재외한인의 문학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존재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¹⁴⁾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속한 언어사회의 조건에 따라 한국어에 의한 창작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어 창작이 형성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 2~3세대의 고려인 문학은 대체로 러시아어로 창작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1년 소련 정권이 무너진 후 우즈베크어가 공식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고려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러시아어로 받았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신문, 잡지, 방송 등이 고려인을 대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점차 우즈베크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어서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 붕괴 후 시대의 문학적 선구는 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정서의 다양성을 새로이 회복한 고려인 문단의 시는 시집의 형태로 간행된 리바체슬라브(이영광)시집 『시절의 꽃잎』(2001), 김계나지 시집 『노스탈지아』와 『금 골짜기』, 김마르따 시집 『다양한 세상』(1994), 『메아리』(1996), 『대보름』(1998), 『장미바람』(2001), 『윤희』(2006) 등을 통해 그 문학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14) 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2007, pp.6~23.

이러한 시인들의 시적 경향은, 정치이념만을 고집했던 1세대의 작가들의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감정을 개성 있게 드러내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들의 시적인 경향을 시적 대상과 그 소재 영역에 따라 구분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감정과 일상적인 생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꾸밈없는 느낌도 깃들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 경향에서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오늘의 고려인 문학에서도 여전히 고려인의 강제이주 시 민족의 아픈 역사를 시의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바체슬라브(이영광)의 「강제이주」 등은 장편서사시의 형식을 지닌 방대한 규모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서정시가 보여주는 새로운 경향과의 달리, 고려인 전체의 운명적인 삶을 역사의 현장에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시문학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모국(모국어)’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누구에겐 에템, 그 누구에겐 엘라다
 하나 내겐 한없이 그리운 땅
 언젠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안개 자욱한 신선한 공기의 땅

간난신고의 풍파를 겪은
 선조들의 피땀에 무젖은 땅
 진달래의 나뭇짐에 박자 맞춰
 출렁이는 파도소리

그곳에선 매미들이 맴맴

세기의 역사를 속삭인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산악의 절경을 삼키지 못해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숨이 막힐 정도로다
새벽별이 반짝일 때까지
뜬눈으로 새로운 밤

누구에겐 에뎀, 그 누구에겐 엘라다
하나 내겐 한없이 그리운 땅
언젠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안개 자욱한 신선한 공기의 땅

간난신고의 풍파를 겪은
선조들의 피땀에 무젓은 땅
진달래의 나뭇짐에 박자 맞춰
출렁이는 파도소리

그곳에선 매미들이 맴맴
세기의 역사를 속삭인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산악의 절경을 삼키지 못해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숨이 막힐 정도로다
새벽별이 반짝일 때까지
뜬눈으로 새로운 밤

-리바체슬라브(이영광), 「고향 땅에 대한 추억」 전문¹⁵⁾

위에 시에서 그리고 있는 고향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 ‘선조들의 피땀에 무뎠은 땅’ 그리운 고향을 의미한다. ‘기이한 폭포의 우렁찬 소리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의 공간은 고향의 토속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흰 쌀 밥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구수한 자장가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는가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
조국에서 기억하여 부르는 소리
이보다 더 반가운 것이 있는가

샷갓을 쓰고 슬펏
장난스러운 시선
엷은 등뒤에서 들려오는
아기 웃음소리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리바체슬라브(이영광), 『고향생각』 전문¹⁶⁾

위 시는 유년의 추억과 회상을 소재로 화자가 향토적 정서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흰 쌀 밥’,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구수한 자장가’는 잊지 못하는,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다.

한국과 소련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인적·물적 교류를 본격화하고,

15) 김종희,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pp.244~245.

16) 유라시아문화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년 7월, 타슈켄트 니자미사범대학 세미나실.

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정식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양국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고려인 시문학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젊은 세대 작가들은 민족의 뿌리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모국어’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한 민족은 그 언어를 통해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고 민족의식을 공고히 한다. 따라서 언어는 혈통, 환경, 역사와 함께 민족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된다. 또한 언어는 문화의 형성, 발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그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¹⁷⁾

이 시간에(時) 말을(言)배우자!
 보다 훌륭한 조화로운 인물이 되자
 절이(寺) 있던 곳에 이제 재만(灰) 있다.
 머나먼 안개속에 강물소리* 들리냐?
 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
 이 날에(日) 말을(言)배우자!
 스탈린 망치로 치인 우리 민족이
 추위의 초원에 굶어 죽는다.
 쓰러져 눈 속에 얼은 조상들 기억하느냐?
 이 날에(日) 말을(言)배우자!

이 해에(年) 말을(言)배우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위해 아니라
 망각의 고통을 극복할 자손들 위해
 무서운 강가에 그 승리를 위해
 이 해에(年) 말을(言)배우자!

17) 강희진, 앞의 책, p.152.

이 일생에 말을(言)배우자!
 우리 세상을 백 배 더 아름답게 만들자.
 짧은 마음속에 불이 끊기지 않으리
 우리의 짧은 일생, 엄격한 일생,
 이 일생에 말을(言)배우자!
 -김 안드레이, 『이 시간에(時) 말을(言) 배우자!』 전문

위 시에서는 화자가 모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인 작가 1세대는 ‘스탈린 망치로 치인 우리 민족이’ (스탈린 정권 하에서) 자신을 고려인이라 인식하거나, 나아가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에 속했다.

소련 붕괴 이후 시대의 소설도 시의 경향이나 그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들 소설은 소련 정권의 정치적인 과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운명과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생활의 일상적인 문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이 내놓은 소설의 성과는 소설집의 형식으로 간행된 김블라지미르의 『멀리 떠난 사람들』(1997), 『김씨들』(2003)¹⁸⁾이다. 그리고 신문과 문예잡지에서 발표된 김브루트의 『꾸일룩 환타지』, 김아르로르의 『남의 집 모퉁이』, 리블라지미르 『희망의 기슭』, 서빅토르 『성채』 등 소설작품을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 작가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민족의 문제를 다루고 발표하였고 2세대 김블라지미르, 류게나지¹⁹⁾ 등과 같은 작가들은

18) 김블라지미르 저, 『김씨들』, Media Land 출판사, 2003.

김블라지미르 저, 최선하 옮김, 『멀리 떠난 사람들』, 인터북스, 2010.

19) 포석 조명희의 생애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장편소설 Геннадий Лю, 『Золотое перо Корей』, 2004, Ijod dunyosi (게나지 류, 『한국의 황금 붓』, Ijod

한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러시아어로 발표하였다. 김브루트, 이블라지미르프 같은 작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작가들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평범한 일상적인 인물들이며,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소설의 무대로 설정되어 있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인간적인 행복이나 소박한 생활감정이 소설 줄거리의 주된 소재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서술의 과정은 소설의 존재 방식과 아울러 그것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²⁰⁾

재배문학이 득세하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불행이다. 그러한 불행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마치 체코의 유태인이 독일어로 글을 써야 하듯이, 또는 우즈베크인이 러시아어로 글을 써야 하듯이, 지배 문학권의 언어로 글을 써야 한다. 그는 구멍을 파는 개처럼, 또는 땅굴을 파는 쥐처럼 글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자신의 고유한 물밑 세계, 자신의 고유한 사투리, 자신의 고유한 제3세계, 자기 자신만의 황량한 세계를 고안해내야 한다.²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어 창작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로서 문학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였으며 고려인 사회가 한인으로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권역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문화협회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고려인 신문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블라지미르의 경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dunyosi, 2004).

20) 이재인, 한용환, 우한용, 『한국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1996, pp.107~116.

21) 들뢰즈, 가타리, 조한경 옮김,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 카프카론』, 文學과知性社, 1992, p.37.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은 보통 자기민족의 장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중략)

다른 나라의 언어와 풍습을 받아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점만 얻는 것은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소비에트 독일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가? 단지 이는 자신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주는 사실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 고려인들과 독일인, 그리고 유대인 등 다른 민족들은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려는 어떤 악의에 찬 실험의 희생자들일지도 모른다.

-김블라지미르, 『멀리 떠나온 사람들』, p.36~37.

IV. 고려인 문학 연구 필요성과 방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전에 이 지역 고려인 문학이 재외한인문학 범주에 속하고 있는지 고려인들의 작품을 민족문학사에 수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속한 고려인 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고려인 문학과 작품을 민족문학사에 수렴하는 일에 대해서 김종희(2008)²²⁾는 ‘수렴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문학의 변방에서 산출되는 이러한 작품 창작과 그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수렴될 때,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은 한반도의 협소함을 벗어나 더 크고 보편적인 범주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려인 문학의 연구는,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는 작가들의 등장에 힘입

22) 김종희, 『남북한 문학과 해외 동포문학의 디아스포라적 문화 통합』, 『현대문학연구』 제25집, 2008, p.504.

어 아니톨리 김과 미하일 박을 주축으로 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문학은 그 문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통한 창작과 모호한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민족문학’의 범주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²³⁾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들의 문학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은 한국 문학의 주류에서 논의되어 온 민족문학, 근대문학이라는 거대담론의 틀을 재조명할 수 있는 타자의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재외한인 문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작 언어라는 조건과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논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 범주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최병우²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외한인 문학 연구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이 필요하다. 내용적 요건으로 한민족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 해당 지역 한인들의 문화와 전통, 소수민족으로서의 삶의 고뇌와 정체성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

언어적 요건으로 한국어 창작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국어를 사용하여 창작한 경우도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느 정도 재외한인 문학으로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외한인 문학의 범주 설정을 위해 이러한 가설을 세웠을 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언어적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켜 준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을 다른 재외한인들과 비교할 때, 소련 정권 하에서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확고

23) 김종희, 『한민족 문화권의 디아스포라 문학』,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p.52.

24) 최병우, 앞의 논문, pp.6~23.

하게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고려인문화협회를 만들어 민족 문화와 민족문학을 계승하고 있다.

소련 해체 후 한국과의 교류가 형성되면서 고려인 3~4세대 작가들은 소련에의 동화로 인한 이중 정체성을 자신들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며 살아 가고 있다. 이중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작품에서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 그 자체가 문제적이다. 우즈베키스탄 작가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이 갖는 특수성, 한국을 방문한 고려인의 체험, 모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재외 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일제강점기 연해주지역에서의 고려인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주목할 만하다. 우즈베키스탄 지역 고려인 문단에서 본격적인 장편소설의 영역을 개척한 김블라지미르의 <김씨들>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고난과 항일 운동, 그리고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소설화한 좋은 예이다. 이 작품은 1900년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전개된 한민족의 격동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연해주 지방의 항일운동을 민족투쟁사의 차원에서 그려낸 이 작품은 심정적인 차원에서의 민족의식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적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과 고려인 사회의 문제를 역사적인 차원에서부터 해명해 보고자 하는 작가 나름의 계산이 담겨 있는 셈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문학의 범주를 한국 또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생각하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한국문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재외한인 문학이다. 이런 점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야 하며 연구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한국 수교 이후 한국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고려인들이 상당 지켜왔던 조상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한글 문학을 창작했다는 사실들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에 고려인들의 문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고려인 문학작품집이 한국에서 출간된 바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고려인 한글 문학에 관한 연구는 소련 정권이 무너진 후 그들의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된 연구자들에 의해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못하던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연구자들은 고려인문학의 개념, 역사, 특성 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이후 고려인 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연구자들은 고려인 문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에 의한 단행본이나 개인 연구자에 의한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연구자 3~4세대들은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학과 자신들의 문학적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고려인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려인 한글 작품에 한정되어 있던 연구 대상을 러시아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아니톨리킴, 미하일박과 같은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작가로 하고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연구적인 시도를 하고 하였다.

러시아어로 창작되고 있는 고려인 문학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출신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물론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의 번역 작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도 없는 일이다. 해외한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2~4세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을 본격적으로 번역 및 연구함으로써 한국문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향후 고려인 러시아어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러시아어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연구자로서는 여력이 부족하여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를 이후의 숙제로 남겨두었다.

둘째, 소련이 붕괴한 후 고려인 작가들은 계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고려신문>에는 젊은 세대 작가들의 시와 단편소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어로 창작된 고려인 문학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고려인이 갖는 이중적 정체성이 고려인 문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학 연구라는 큰 범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인 2~3세대 작가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국을 방문한 작가들에게는 한국어 새로운 체험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아울러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고려인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모국이 미친 영향이 고려인 문학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시도가 고려인 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앞으로의 한민족문학의 범주를 넓히고 고려인 문학을 한국문학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V. 맺음말

위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역 고려인 문학에 대한 현황과 변모 그리고 문학과 창작활동에 대해 논의 해보았다. 본고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려인 문학은 한글 문학과 러시아어 문학을 나눌 수 있는데 한글 문학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에 러시아어 문학이 늘어날 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들의 문학은 <선봉>이라는 신문의 문예란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신문의 제호는 <레닌기치>, <고려일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신문>과 문예집 <아리랑1937>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이 매체들이 이 지역 문학창작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 대해 관심이 미미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이 많지 않는 편이다. 작품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구의 깊이도 부족해서 그동안은 개별 작가나 작품론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전반적인 양상을 언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 시적 정서의 다양성을 새로이 회복한 고려인 문단의 시는 시집의 형태로 간행된 리바체슬라브(이영광)시집 『시절의 꽃잎』(2001), 김계나지시집 『노스탈지아』와 『금 골짜기』, 김마르따 시집 『다양한 세상』(1994), 『메아리』(1996), 『대보름』(1998), 『장미바람』(2001), 『윤희』(2006) 등을 통해 그 문학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소설의 성과는 소설집의 형식으로 간행된 김블라지미르의 『멀리 떠난 사람들』(1997), 『김씨들』(2003)이다. 그리고 신문과 문예잡지에서 발표된 김브루트의 『꾸일룩 환타지』, 김아르로르의 『남의 집 모퉁이』, 리블라지미르 『희망의 기슭』, 서빅토르 『성채』 등 소설작품을 들 수 있다.

셋째, 고려인 문학을 한민족 문학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한민족 문학의 범주를 보다 크게 상정해 볼 때, 고려인 문학이 ‘재외 한인’ 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인 작가와 이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연구와 러시아어로 창작된 작품의 번역 작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본고에서 다룬 고려인 문인에 대한 연구적인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석, 연구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고려인들의 러시아어 작품 창작과 그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수렴될 때,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²⁵⁾은 한반도의 협소함을 벗어나 더 크고 보편적인 범주를 지니게 될 줄 믿는다.

25) 김종희, 앞의 책 p.65.

【참고문헌】

1. 자료

김블라지미르 저, 『김씨들』, Media Land 출판사, 2003.

김블라지미르 저, 최선하 옮김, 『멀리 떠나온 사람들』, 인터북스, 2010.

문예집 『아리랑 1937』, 제1집, 사니얏 출판사, 2008.

문예집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 1992.

신문 <고려신문>

신문 <레닌기치>

Генадий Лю, 『Золотое перо Кореи』, 2004, Ijod dunyosi, (게나지 류, 『한국의 황금 붓』, Ijod dunyosi, 2004).

2. 단행본

강희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 문학들, 2010.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김중희,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_____,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_____,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구소련 지역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시문학 양상』, 2003.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 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들뢰즈, 가타리 지음, 조한경 옮김,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 카프카론』, 文學과知性社, 1992.

서정자,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이명재, 『소련 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_____,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2004.

이재인 ; 한용환 ; 우한용 공저, 『한국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1996.

장사신,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3. 논문

- 김중희, 『남북한 문학과 해외 동포문학의 디아스포라적 문화 통합』, 제20집, 2007, pp.5~23.
- 김필영, 『Forced Deportation and Literature Imagin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3, 2002~10, pp.123~152.
- _____, 『Korean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in Soviet Kazakhstan』, Journal of Korean studies 4, 2003, pp.55~78.
- _____,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한인문학과 희곡작가 한 진 (1991~1993)의 역할』, 한국 문학학회 27, 2000, pp.209~240.
- _____, 『송라브렌띠의 희곡 ‘기억’과 카자흐스탄 고려 사람들의 강제 이주 체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4, 1998. 12, pp.107~133.
- 박안토니나, 『중앙아시아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_____, 『미하일박의 소설 연구 :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國際語文』제51집, 2011, pp.347~371.
-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 문학 연구 : 호주 한인문학과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제10집, 1호, 2002, pp.205~253.
- 장실, 『러시아에 뿌리 내린 우리문학』, 문예중앙, 1996.
- 조재수, 『중국·소련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론』, 문학한글, 1990, 4호.
- 최병우, 『중국 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현대문학연구』 제25집, 2008, pp.487~508.

Abstract

Research Needs and Direction of Korean Literature in Uzbekistan

Pak, Antonina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many Korean researchers attempted to study not only Korean culture but also Korean literature. What they focused on was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and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uthors. Many researchers are showing interest in this field these days even though the study about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Russian by the second to fourth generation Korean is insufficient in amount and time.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study about the second to fourth generation Korean authors who write in Russian working in the region of Uzbekistan. The premise is that there is a limit of insufficient research and data abou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second to fourth generation authors. But some directions are suggested to study about Korean literature in Uzbekistan in succession by examining Korean literature's transformation, achievement, limitations, and the needs of research.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Russian literature, overseas Korean literature, dual identity, literary categories, mother tongue

박안토니나(Antonina, Pak)

소속 :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5-37번지 402호

전화번호 : 070-685-5465, 010-7556-5465

전자우편 : uztonya@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3월 2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23일 게재 확정됨.